



여자 주니어핸드볼 국가 대표팀이 15일 오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펼쳐진 튀니지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韓, 러·노르웨이 넘어 우승 정조준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선수권 내일 광주서 개막
 주장 유은희·무안 백제고 출신 김선화 활약 기대

17일 빛고를 광주에서 제 17회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선수권대회가 개막한다.
 오후 2시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5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앞선 7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를 따내는 등 세계 무대 정상에 올랐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노르웨이와의 준결승에서 오심의 희생양이 됐지만, 금메달 만큼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는 아직 우승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2008년 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3차례 준우승을 거뒀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안방에서 맞는 대회인 만큼 주장 유은희(20·백산건설)의 각오는 남다르다. 팀에서 라이트백을 맡고 있는 유은희는 180cm의 큰 키에서 뿜어지는 위력적인 슈팅 돋보이는 팀의 주포. 지난 1월 핸드볼큰잔치 득점왕에 올랐던 유은희는 왼손잡이라는 장점까지 더해 성인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 핸드볼의 기대주다.
 유은희는 "성인대표팀에서는 막내라 선배들이 하라는 데

로 하거나 하면 되는데 주니어대표팀에서는 주장으로 앉아서 챙겨야 하는 것도 많다. 또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라 부담감이 더 크다"면서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단합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매 시간 열심히 하자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목표는 우승이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꼭 이겨보고 싶은 상대다.
 유은희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언니들이 노르웨이에게 졌는데 지난해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설욕을 했었다"며 "노르웨이가 강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 B조에 속해 있어 A조에 편성된 노르웨이와는 본선 무대 대결을 기다려야 한다.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 러시아도 경계해야 할 상대다.
 러시아는 2008년 유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인데다 20세 이하 주니어 대회에서도 소련 시절을 포함해 무려 10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장신 선수들이 즐비하고 양쪽 윙에는 스피드를 갖춘 요원들까지 포진하고 있어 까다로운 상대라는 평이다.
 라이트윙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선화(19·백산건설)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눈길을 끄는 선수. 무안 백제고 출신의 김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유은희(왼쪽)· 김선화 선수.

선화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차체대 주포로 눈길을 끈 국가대표 김은아의 친동생으로 '자매 대표'다. 160cm의 단신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영리한 플레이가 돋보인다. 김선화는 "고향에서 하는 경기라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이 되기도 하다.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고 싶다.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매 경기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언니는 넘어야 하는 벽이자 든든한 동료이기도 하다. 백산건설에서 언니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선화는 "언니는 일찌감치 대표에 선발되는 등 언니와의 비교가 부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잘 안 풀릴 때 조언도 해주고 많은 격려를 해준다"고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힘보다는 스피드 빛고을서 일내겠다”

백상서 주니어대표팀 감독

“수비와 심리적인 싸움이 대회 결과에 좌우할 것이다.”
 백상서(41) 한국 여자 주니어핸드볼 대표팀 감독이 안방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첫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홈 경기의 이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대회에 나서게 되는 백 감독이 꼽는 우승의 요건은 수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다.
 백 감독은 “공격에서는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본다. 선수들이 수비에서 얼마만큼 약삭같이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것이다”고 밝혔다.
 아테네와 베이징 올림픽 무대에서 성인 대표팀과 호흡을 맞췄던 백 감독은 지난 겨울부터 주니어 선수들을 이끌고 대회를 준비해왔다.
 백 감독은 “어린 선수들이라 보니 승부사적인 기질과 심적인 컨트롤이 부족하고, 개성들도 다양하다”며 “가장 어려



운 점은 바로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광주에 온 대표팀은 자체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15일 저녁에는 튀니지와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등 17일 중국과의 개막전에 대비한 준비를 끝마쳤다.
 백 감독은 “주최국의 이점으로 예선에서 최대한 강팀을 피했지만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며 “힘보다는 스피드를 앞세우는 핸드볼로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양현종·김상훈도 별들의 잔치에

손영민 등 감독추천 합류 ... KIA 6명 출전

KIA 타이거즈의 안방마님 김상훈과 마운드의 핵심 양현종·손영민이 감독추천으로 '별들의 잔치'에 참가하는 기회를 잡았다. 이로써 KIA는 팬 선정 올스타 이영규·최희섭·안치홍 등을 합해 6명의 선수가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오는 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2010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참가할 선수단 명단이 14일 확정 발표됐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고 투수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웨스턴 리그와 이스턴 리그 각 12명을 감독추천 선수로 선정했다.
 웨스턴 리그 사령탑인 조병현 감독은 김상훈·양현종·손영민(이상 KIA), 금민철·손승락·김민우(이상 넥센), 봉준근·이동현·정성훈·이진영(이상 LG), 신경현·최진행(이상 한화) 등을 올스타에 추천했다.
 이스턴 리그 김성근 감독은 김광현·카도쿠라·박경완·최정·박정권·김강민(이상 SK), 이용찬·히메네스·손시현(이상 두산), 장원삼·권혁·차우찬·진갑용·조동찬(이상 삼성) 등을 선발했다. 부상중인 '베스트 10'

롯데 조정훈·박기혁 대체 선수를 포함하면 14명이 된다.
 KIA 손영민, 넥센 금민철·손승락·김민우, 한화 최진행은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10과 감독추천을 받은 44명의 선수들은 올스타전 경기에 앞서 팬사인회와 홈런 레이스 등 각종 행사에도 참가해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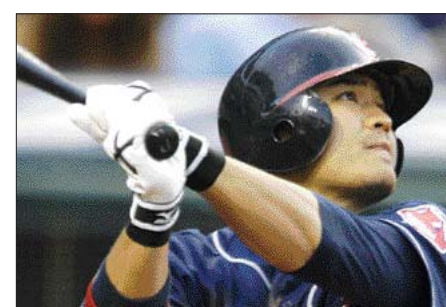
KIA 이번엔 배터리 코치 교체

KIA 타이거즈가 15일 배터리 코치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15일 KIA 1군 장재중 배터리 코치와 2군 김지훈 배터리 코치가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달 30일 연패로 침체된 팀 분위기를 쇠신을 위해 1·2군 운영팀장 교체 인사를 단행했던 KIA는 14일 LG와의 경기가 패배로 끝난 뒤 배터리 코치를 교체했다. 올 시즌 KIA의 코칭 스태프 인사는 세 번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0 프로야구 올스타전 출전선수

이스턴 리그	구분	웨스턴 리그
김성근(SK)	감독	조병현(KIA)
김경민(두산), 로이스터(롯데), 선동열(삼성)	코치	김시진(넥센), 박종훈(LG), 한대화(한화)
감독추천선수	베스트10	선수
김광현·카도쿠라(SK)	김민철·손승락(넥센)	양현종·손영민(KIA)
이용찬·히메네스(두산)	장원삼·권혁·차우찬(삼성)	봉준근·이동현(LG)
정성훈·이진영(이상 LG)	신경현·최진행(이상 한화)	감독추천선수
박정권(SK), 진갑용(삼성)	김민우(두산)	김상훈(KIA), 신경현(한화)
최정(SK)	손시현(두산)	조동찬(삼성)
손시현(두산)	조동찬(삼성)	조병현(롯데)
조동찬(삼성)	박기혁(롯데)	불참
박정권·김강민(SK)	김현수(두산)	이종욱(두산)
	가르시아(롯데)	지명타자
홍성훈(롯데)	지명타자	김태환(한화)

추신수 클리블랜드 MVP



‘호타준족’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전반기에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
 클리블랜드는 15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추신수를 전반기 타자 최우수선수(MVP)로 뽑았다. 추신수는 부상 전까지 타격(0.286), 홈런(13개), 타점(43개), 출루율(0.390)에서 모두 팀 내 1위를 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부상 직전 9경기에서 홈런 5개를 쏘아 올리는 통쾌한 장타력을 뽐냈다.
 추신수는 이르면 이달 말 팀 타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클리블랜드는 또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에는 올 시즌 8승7패에 평균자책점 3.64로 호투한 우완 파우스토 카모나(27)를 지목했다. 또 팀내 최고의 신인에 미치 탈봇, 최고 구원투수에 크리스 페레스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심판 스폰서’ 논란 KBO, 경위 조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불거진 ‘심판 스폰서’ 논란의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15일 “심판들이 화장품 업체인 VOV의 광고를 심판복에 부착하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 업체가 넥센 히어로즈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

론을 보고서야 알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곧 진상을 파악해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심판들은 보름 전 KBO의 허가를 받아 지난 주말경기부터 VOV 상표를 심판복 상의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상의 오른쪽에는 프로야구 스폰서인 CJ마구마구 상표가 붙어 있다.
 심판위원회가 VOV로부터 받은 후원금액은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핵심은 심판위원회가 넥센과 같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데 있다.
 /연합뉴스